



신생아복의 사용 실태 및 만족도 연구 - 배냇저고리를 중심으로 -

권상희 · 노의경^{1)†}

진북대학교 의류학과

¹⁾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Usage and Satisfaction of Newborn Clothing - Focused on Baenaet Jeogori -

Sang-Hee Kwon and Eui Kyung Roh^{1)†}

Dept. of Fashion Desig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¹⁾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ustomers' possession, usage, and satisfaction of newborn clothing, and analyzes their satisfaction with textiles of baenaet jeogori (the most basic Korean item of newborn clothing).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02 mothers with infants under 24 months old. The baenaet jeogori was the most commonly possessed item, followed by swaddling blanket, shirt and pants set, bodysuit, one-piece, and baenaet gown. About 52.6% of respondents used the swaddling blanket all day, 52% of respondents possessed 4-6 baenaet jeogories, and most respondents used the baenaet jeogori 4 weeks or more. Two most important selection criteria of the baenaet jeogori were textiles and season suitabilit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functionality.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baenaet jeogori; however,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difficulty in putting and taking off as well as textiles. Most baenaet jeogories chosen by respondents were made of cotton and 68.8% of them were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extiles when they are unsuitable for the season. Eco-friendly textiles were chosen for baby health and eco-friendliness, and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a baenaet jeogori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in general. The results show customers' high interest in textiles and the popularization of newborn clothing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There was little interest in eco-friendly or safety certification marks despite the significant interest in the functionality and safety of textiles. Therefore, correct information on those certification marks is required.

Key words: newborn clothing (신생아복), baenaet jeogori (배냇저고리), satisfaction (만족도), eco-friendly textiles (친환경 소재)

1. 서 론

태어나서부터 4주 동안의 아기를 신생아라 하며, 이때는 젖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18~22시간 잠을 자며, 젖은 2~3시간마다 한 번씩 먹고, 소변은 하루 10회 이상 본다. 또한 젖을 먹은 후 트림을 하면서 젖을 토하기도 한다(Jang, 2009; Samsung Publishing Co., 2017). 신생아는 체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작동하는 갑상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할 뿐 아니라 체중에 비해 신체 표면적이 넓어 주변 환경이나 온도 변화, 작은 움직임에도 체온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더울 때에도 땀샘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스스로 체온을 낮출 수 없다. 땀샘은 생후 8주는 되어야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후 2개월까지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신체기관에 비해 뇌가 많이 발달된 상태이나, 움직임을 관장하는 소뇌의 발달이 더디어서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끔 움찔거리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비동거리기도 한다(Samsung Publishing Co., 2017).

신생아복에는 배냇저고리, 배냇가운, 바디슈트, 우추복, 상하내의, 속싸개, 천기저귀, 기저귀커버, 턱받이, 손발싸개, 모자 등이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배냇저고리이다. 신생아만의 생리현상으로 인해 배냇저고리는 입고 벗기기 편리하도록 앞트임이며, 끈이나 단추로 여미는 형태이다(Roh & Kwon, 2018; Yoon, 2010). 한편, 속싸개는 아기의 숙면을 도우며, 아기를 반

†Corresponding author; Eui Kyung Roh

E-mail: rek7656@gmail.com

© 2018 (by) the authors.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듯한 자세로 만들어 유아 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Gerard et al., 2002; Van Sleuwen et al., 2007). 신체기관이 미숙한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 아이템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소비자의 감성 및 선호도를 반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Roh & Kim, 2010; Roh & Oh, 2014, 2015, 2017; Roh et al., 2013). 그러나 신생아복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영·유아복 연구에 포함되어 간략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Do et al., 2003; Ji, 1993; Kim & Lee, 2010; Kim & Sohn, 1999; Lee & Chun, 2001; Park & Jung, 2014). 신생아복을 단독으로 연구한 경우는 주로 디자인 분야에 한정되었다. Jang(2015)과 Yoon(2010)은 한국적 이미지 및 친연염색을 이용한 배냇저고리의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Lee(2017)와 Jang(2009)은 배냇저고리 DIY 상품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Roh and Kwon(2018)은 시판 신생아복 현황과 소비자 불만사항을 심층 인터뷰하여 질적 연구하였으나, 신생아복 사용 현황에 대한 연구와, 한 자녀 소비자와 다자녀 소비자의 신생아복 구매행동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신생아복을 처음 경험하는 소비자와 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간에 신생아복 인식과 구매행동 차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면, 신생아 사용 현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신생아복 개발 전략 수립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영·유아제품

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생아 베개와 신발, 아기 외출복 등의 일부 유아의류 및 용품에서 납과 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신생아복의 안전성 및 친환경 신생아복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는 피부가 매우 연약하고 환경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화학약품 등에 의해 심한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피부에 직접 닿는 신생아복의 소재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출생률의 저하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골드키즈(Gold kids) 현상으로 한 자녀에게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신생아복 시장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6). 또한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이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서 화학 물질이 첨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Baby clothes hazardous”, 2017; Bang, 2017; Song, 2010). 소비자들의 육아에 대한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복 및 소재 사용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신생아 의류 중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여겨지는 배냇저고리 및 그 소재의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생아복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heir children

Category		N	%	Category	N	%	
Number of children	1	67	65.7	Education	High school	10	9.8
	2	25	24.5		College/University	66	64.7
	3	10	9.8		Graduate school	26	25.5
Birth season	Spring	29	28.4	Job	Homemaker	47	46.1
	Summer	24	23.5		Administrative position	6	5.9
	Fall	28	27.5		Office job	13	12.7
	Winter	21	20.6		Services	4	3.9
Sex of child	Boy	43	42.2	Professional work	24	23.5	
	Girl	59	57.8	etc.	8	7.8	
Age of child (month)	0-4	26	25.5	Monthly income	-1million won	6	5.9
	5-8	10	9.8		1-3million won	20	19.6
	9-12	9	8.8		3-5 million won	37	36.3
	13-16	14	13.7		5-8million won	26	25.5
	17-20	24	23.5		8million won-	4	3.9
	21-24	19	18.6		Missing value	9	8.8
Age of respondent	20s	9	8.8	Total	102		
	30s	79	77.5				
	40s	14	13.7				

2. 연구 방법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복에 대한 불만사항을 심층 인터뷰한 Roh and Kwon(201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 배냇저고리 사용 현황 및 만족도,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보유 아이tem, 주요 사용 아이tem, 속싸개 사용 방식)에 관한 질문 6문항, 배냇저고리 사용 현황(취득 경로, 선택 기준, 보유 벌 수, 시즌, 사용 기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 8문항,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소재 종류, 친환경 소재 선택 이유)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 6문항, 인구통계학적 질문 9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주로 다중응답문항을 이용하여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때 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 1점, ‘매우 불만족한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 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육아카페 및 키즈 카페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4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불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10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 분석, 교차분석, t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 수, 외동 또는 막내 자녀의 출생 계절과 성별, 아기 나이(개월), 응답자의 연령, 최종학력, 직업, 소득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자녀 수 1명이 6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출생계절은 사계절이 유사한 비율(21~29%)을 보였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57.8%로 남아보다 더 많았으며, 아기의 월령은 0~4개월이 25.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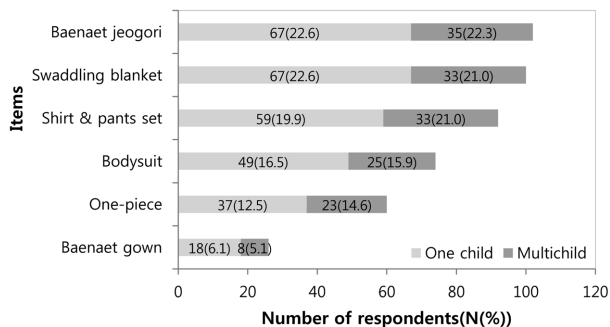


Fig. 1. Possessing newborn clothing items;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대가 77.5%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46.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월수입은 300~500만원이 36.3%로 가장 많았다.

3.2.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

보유한 신생아복 종류를 알아보았으며,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Fig. 1). 보유한 신생아복 종류에 대한 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응답자들은 배냇저고리(baenaet jeogori)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속싸개(swaddling blanket), 상하 내의(shirt & pants set), 바디슈트(bodysuit), 우주복(one-piece), 배냇가운(baenaet gown)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상하 내의는 간편한 여밈과 착탈, 하의 착용에 의한 우수한 보온 효과, 계절별 다른 소재 사용과 소매 및 바지 길이 차이 때문에 선호되었으며, 바디슈트는 가량이 부분이 단추로 고정되어 옷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Roh & Kwon, 2018). 자녀수에 따른 보유 아이tem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신생아복 아이tem 조합과 아이tem 수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2). 총 13가지 조합의 신생아복 아이tem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우주복의 조합을 보유한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우주복×배냇가운(15.7%),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13.7%),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13.7%) 순이었다. 이 4가지 조합이 76.4%를 차지하며, 배냇저고리, 속싸개와 상하 내의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에 포함된 조합은 배냇저고리×속싸개(2.9%), 배냇저고리×상하 내의×바디슈트×우주복(2.9%), 배냇저고리×속싸개×바디슈트×배냇가운(2.9%),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우주복×배냇가운(1%),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배냇가운(1%), 배냇저고리×속싸개×우주복(1%) 등이었다. 주로 한 자녀 응답자가 기타 조합으로 신생아복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한 아이tem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5종이었다.

집에서 주로 사용한 신생아복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Fig. 2). 배냇저고리(37.9%), 속싸개(30.5%), 상하 내의(17.7%)를 주로 착용하였다. 매일 목욕을 시키고 땀에 젖으면 바로 옷을 갈아 입히고, 기저귀 교체 시 잦기 때문에 앞트임과 아랫트임의 배냇저고리가 편리하여 사용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Fig. 1에서 보듯이 모든 응답자(102명)가 배냇저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기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들이(10명) 있었다. 이는 배냇저고리의 끈으로 묶는 여밈 방법과 옷이 올라가서 배가 나오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상하 내의와 바디슈트 등이 대체 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oh & Kwon, 2018).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다자녀 응답자는 속싸개, 배냇가운, 우주복을 덜 사용하고, 상하 내의와 바디슈트를 더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bination of newborn clothing and number of items

Item combination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N	%	One child		Multichild	
				N	%	N	%
1	BJ*SB*SP*BS*OP	34	33.3	21	31.3	13	37.1
2	BJ*SB*SP*BS*OP*BG	16	15.7	11	16.4	5	14.3
3	BJ*SB*SP	14	13.7	9	13.4	5	14.3
4	BJ*SB*SP*BS	14	13.7	11	16.4	3	8.6
5	BJ*SB*SP*OP	4	3.9	0	0.0	4	11.4
6	BJ*SB*SP*BG	4	3.9	2	3.0	2	5.7
7	BJ*SB*BS	4	3.9	3	4.5	1	2.9
	etc.	12	12.0	10	15.0	2	5.7
	Total	102		67		35	
Number of possessing items		N	Mean(SD)	N	Mean(SD)	N	Mean(SD)
		102	4.5(1.0)	67	4.4(1.1)	35	4.5(0.8)
				t-value		.24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BJ: baenaet jeogori, SB: swaddling blanket, SP: shirt & pants set, BS: bodysuit, OP: one-piece, BG: baenaet g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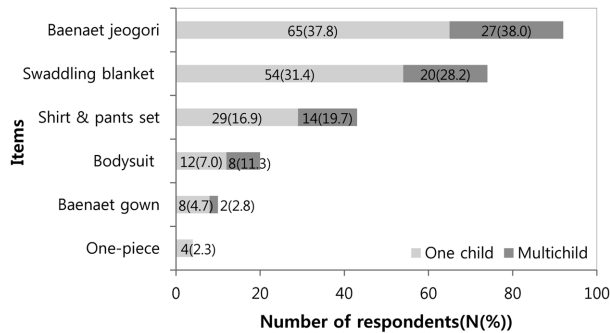


Fig. 2. Mainly used items of newborn clothing at home;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속싸개 사용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3). 언제 속싸개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하루 종일 사용한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외출 시(19.3%), 추울 때(15.8%), 저녁에(12.3%) 속싸개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 자녀 응답자는 속싸개를 저녁에, 다자녀 응답자는 외출 시 더 사용하였다.

속싸개 사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안정감 부여(23.7%), 모로 반사 방지(21.0%), 추위 방지(17.7%), 숙면(16.2%) 등이 주요 이유였다. 다자녀 응답자들이 안정감 부여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속싸개를 사용 중지한 주요 이유는 아기가 속싸개를 풀고 빠져나옴(3.6%), 태열 발생(2.7%)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땀, 주변인 권유 등이 포함되었다. 한 자녀 응답자들이 아기가 속싸개를 풀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속싸개 사용 중지를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커다란 사각형 형태와는 달리 최근에는 T형 또는 Y형에 벨크로나 지퍼 등의 여밈장치를 이

용한 속싸개 대용품들이 출시되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속싸개의 긍정적 효과와 달리, (Gerard et al., 2002; van Sleuwen et al., 2007)과 달리, 속싸개는 SIDS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선천성 고관절탈구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Blair et al., 2009; “Swaddling”, 2010)도 보고되고 있어 속싸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필요하다.

3.3. 배냇저고리 사용 현황 및 만족도

배냇저고리 취득 경로 및 선택 기준을 다중응답으로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4). 배냇저고리 취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오프라인 구입(21.8%), 지인 선물(20.9%), 산부인과 또는 조리원(19.4%)에서 취득하였다. 이외에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물려받거나(14.6%), 온라인(13.7%) 및 베이비 페어(9.6%)에서 구입하였다. 한 자녀 응답자는 선물 형태(43.9%)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자녀 응답자는 구매(48.5%) 또는 지인들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한 자녀 응답자보다 많았다.

배냇저고리 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소재(18.4%)와 출생 계절(14.9%)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출생 계절 역시 소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드러낸다. 아동복 구매 시에는 디자인과 색상, 유아복 구매 시에는 기능성 및 실용성, 가격, 소재 순으로 중시하였다(Ji, 1993; Park, 1991; Song,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아이의 옷을 구매 시 연령기마다 다른 선택기준으로 의복을 구매함을 보여준다. 디자인(11.8%), 사이즈(9.8%), 구성 방법(8.6%), 가격(8.6%)도 주요 선택 기준이었으며, 이외에도 친환경 마크, 착탈 방법, 브랜드, 취급 및 관리, 봉제 상태, 평

Table 3. Swaddling blanket usage

Category	Response N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Wearing time of swaddling blanket	Response N	102		67		35	
	All day	60	52.6	40	51.9	20	54.1
	When going out	22	19.3	13	16.9	9	24.3
	When it is cold	18	15.8	12	15.6	6	16.2
	In the evening	14	12.3	12	15.6	2	5.4
	Total	114		77		37	
Reasons for use of swaddling blanket	Response N	100		65		35	
	Comfortability	79	23.7	53	21.0	26	32.1
	Prevention of Moro reflex	70	21.0	56	22.2	14	17.3
	Prevention of cold	59	17.7	43	17.1	16	19.8
	Deep sleep	54	16.2	38	15.1	16	19.8
	Practice of hospital and postnatal care center	16	4.8	14	5.6	2	2.5
	Advice of friends	12	3.6	9	3.6	3	3.7
	A book on childcare	8	2.4	8	3.2	0	0.0
	etc.	1	0.3	1	0.4	0	0.0
Reasons for discontinuance swaddling blanket	Response N	21		17		4	
	The baby escaped from swaddling blanket	12	3.6	10	4.0	2	2.5
	Congenital fever	9	2.7	7	2.8	2	2.5
	High temperature of babies	6	1.8	6	0.8	0	0.0
	Baby cried	3	0.9	3	1.2	0	0.0
	etc.	4	0.6	4	1.6	0	0.0
Total	333		252		81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판 및 후기, 국내 제작, 안전인증마크, A/S 여부 순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최근 유아용품의 유해성분 문제로 인해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정작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 마크나 안전인증 마크에 대한 관심과 사전 지식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친환경 마크나 안전인증 마크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한 자녀 응답자는 신생아복 구매 시 소재(18.0%)와 출생 계절(16.2%), 디자인(13.5%), 사이즈(9.8%), 가격(9.2%), 구성 방법(8.6%), 친환경 인증 마크(5.5%)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에, 다자녀 응답자는 소재(19.0%)와 출생 계절(12.3%), 사이즈(9.8%), 디자인(8.6%) 및 구성 방법(8.6%), 가격(7.4%), 친환경 인증 마크(6.1%), 착탈 방법(6.1%), 취급 및 관리(6.1%)

Table 4. Acquisition methods and considerations for purchase of baenaet jeogori

Category	Response N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Acquisition methods	Response N	102		67		35		
	Purchase	Offline store	73	21.8	49	21.5	24	22.4
		Online store	46	13.7	28	12.3	18	16.8
		Baby fair	32	9.6	22	9.6	10	9.3
	Present	Present	70	20.9	51	22.4	19	17.8
		Postnatal care center or hospital	65	19.4	49	21.5	16	15.0
	Hand-me-down	Hand-me-down from relative or friend	49	14.6	29	12.7	20	18.7
Total		335		228		107		

Table 4. Acquisition methods and considerations for purchase of baenaet jeogori(continued)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Response N	102		67		35	
Textiles	90	18.4	59	18.0	31	19.0
Birth season	73	14.9	53	16.2	20	12.3
Design(color, print/pattern, trimmings)	58	11.8	44	13.5	14	8.6
Size	48	9.8	32	9.8	16	9.8
Construction(opening, mitten cuffs, length)	42	8.6	28	8.6	14	8.6
Price	42	8.6	30	9.2	12	7.4
Eco-friendly certification mark	28	5.7	18	5.5	10	6.1
How to put on and take off	24	4.9	14	4.3	10	6.1
Brand	22	4.5	14	4.3	8	4.9
Wash & care	19	3.9	9	2.8	10	6.1
Sewing	16	3.3	10	3.1	6	3.7
Reputation	12	2.4	8	2.4	4	2.5
Domestic products	6	1.2	4	1.2	2	1.2
Safety certification mark	6	1.2	2	0.6	4	2.5
A/S	4	0.8	2	0.6	2	1.2
Total	490		327		163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다자녀 응답자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디자인 및 가격보다, 착탈 및 취급 방법 등 사용 관련 요소를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매한 배냇저고리의 시즌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사계절용(53.2%), 여름용(27.0%), 겨울용(13.5%) 순이었다(Table 5). 다자녀 응답자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사계절용 구매율이 높았다. 여름(6~8월) 출생 시에는 여름용을, 봄(3~5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출생 시에는 사계절용을 많이 구매하여 출생 계절이 배냇저고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겨울에 출생하더라도 겨울용 배냇저고리의 구매율은 낮았다. 이는 신생아는 체온이 높고, 외출할 일이 드물고, 속싸개를 사용하고, 겨울에도 실내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용

배냇저고리의 구매율이 낮음을 보여준다(Roh & Kwon, 2018). 또한 응답자들의 속싸개 사용비율이 높고 하루 종일 속싸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여름용 배냇저고리에 얇은 소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배냇저고리 보유 별 수 및 착용기간을 알아보았으며,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Fig. 3). 배냇저고리 보유 별 수는 5벌이 가장 많았으며(21.6%), 응답자의 52%가 4~6벌을 보유하고 있었다(Fig 3(a)). 한 자녀 응답자는 주로 5~6벌(41.8%)을, 다자녀 응답자는 주로 4~5벌(42.4%)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냇저고리 착용 기간은 4주(31.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8주>6주>5주, 2~3달>3~4달>1, 2주 순이었다. 배냇저고리는 일반적으로 신생아기에 사용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

Table 5. Baenaet jeogori's seasons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Birth season							
			One child		Multichild		Spring		Summer		Fall		Winter	
	N	%	N	%	N	%	N	%	N	%	N	%	N	%
Response N	102		67		35		29		24		28		21	
All season	67	53.2	42	48.3	25	64.1	23	59.0	10	31.3	22	68.8	12	52.2
Summer	34	27.0	26	29.9	8	20.5	10	25.6	16	50.0	2	6.3	6	26.1
Winter	17	13.5	13	14.9	4	10.3	4	10.3	2	6.3	6	18.8	5	21.7
Uncertain	8	6.3	6	6.9	2	5.1	2	5.1	4	12.5	2	6.3	0	0.0
Total	126		87		39		39		32		32		23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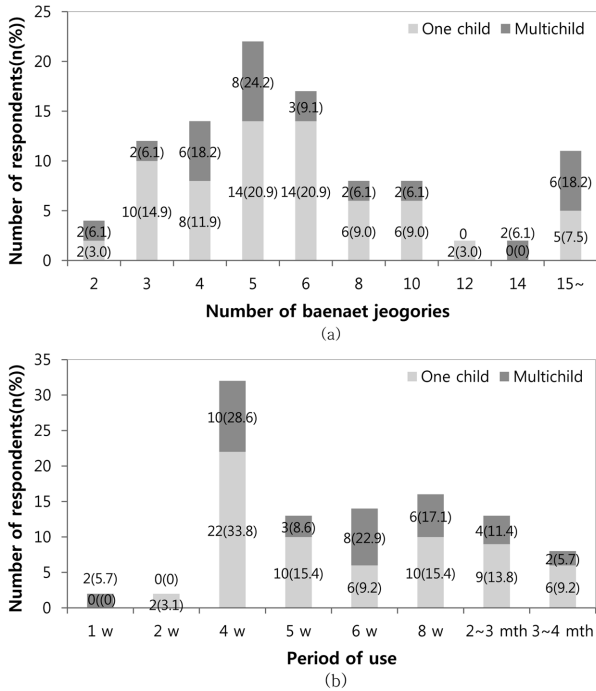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possessed baenaet jeogories: (a) number of possessed baenaet jeogories, (b) period of use, n: 100, missing value: 2.

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이는 배넛저고리 사이즈에 여유가 있어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oh & Kwon, 2018).

사용한 배넛저고리의 만족도, 만족 이유 및 불만족 이유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6). 사용한 배넛저고리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착탈 편리(35.5%)가 가장 많았으며, 소재(29.1%),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봉제 방식(14.5%), 디자인(7.0%) 순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생아는 분비물과 배설량이 많아서 옷을 자주 갈아 입혀야 하는데, 상하 내의, 바디슈트, 우주복과 달리 배넛저고리는 아래가 터진 상체 여밈으로, 착탈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불만족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착탈 불편(5.8%), 소재(1.7%), 디자인(1.2%) 순이었다. 배넛저고리는 겹여밈 안과 밖 모두 끈으로 여미는 경우가 많으며, 끈 여밈으로 인한 불편한 착탈 문제는 Roh and Kwon(2018)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자녀 수에 따른 만족 및 불만족 이유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만족 이유에 대해 한 자녀 응답자는 착탈 편리(40.2%), 소재(27.1%), 봉제 방식(17.8%)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나, 다자녀 응답자는 소재(32.3%), 착탈 편리(27.7%), 디자인(12.3%)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불만족 이유에서도 한 자녀 응답자는 착탈 불편(7.5%)을 주요 이유로, 다자녀 응답자는 소재(4.6%)를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육아 경험이 많을수록 배넛저고리 착탈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또한 육아 경험으로 인해 소재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됨을 알 수 있다.

Table 6.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Mean	N	Mean	N	Mean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	102	3.51(.98)	67	3.49(.99)	35	3.54(.98)	
	t-value		-.24				
	Response N		59		31		
Reasons for 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Easy to put on and take off	61	35.5	43	40.2	18	27.7
	Textiles	50	29.1	29	27.1	21	32.3
	Sewing	25	14.5	19	17.8	6	9.2
	Design(color, print/pattern, trimmings)	12	7.0	4	3.7	8	12.3
	Size	6	3.5	2	1.9	4	6.2
	Brand	2	1.2	0	0.0	2	3.1
	Label with no skin rashes	2	1.2	0	0.0	2	3.1
Reasons for dis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12	8		4		
	Difficult to put on and take off	9	5.2	8	7.5	1	1.5
	Textiles	3	1.7	0	0.0	3	4.6
	Design(color, print/pattern, trimmings)	2	1.2	2	1.9	0	0.0
Total	172		107		65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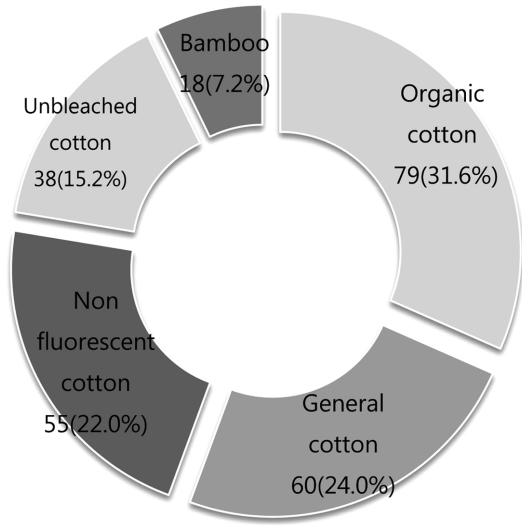


Fig. 4. Fiber type of baenaet jeogori: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3.4.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 및 만족도

사용한 배냇저고리의 섬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

가닉 면(31.6%)이 가장 많았다(Fig. 4). 다음으로는 일반 면(24.0%), 무형광 면(22.0%), 무표백 면(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나무 섬유(7.2%)도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면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면섬유가 내구성과 흡습성이 좋아 착용감이 좋고, 오구를 잘 흡수하여 위생적이며, 세탁이 쉽고 섬유의 손상이 적어 신생아복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Kim, 2000). 오가닉 면, 무형광 면, 무표백 면 등 친환경 소재의 비율이 68.8%로, 소비자들은 피부가 연약한 신생아에게 자극이 적은 친환경 소재의 배냇저고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한 배냇저고리의 소재 만족도, 만족 이유 및 불만족 이유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7). 배냇저고리의 소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2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 소재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 자녀 응답자들의 소재 만족도가 다자녀 응답자보다 높았다.

배냇저고리의 소재에 만족한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천연소재(24.7%), 계절에 적합한 소재(17.9%), 유해화학물 무첨가(11.1%), 흡습성과 통기성 우수(9.3%), 촉감(9.0%), 세탁 및 관리 용이(8.6%) 등의 순이었다. 자녀 수에 따른 소재 만족 이유에 큰 차이는 없으나, 한 자녀 응답자는 계절에 적합한 소

Table 7. Fiber type of respondents' baenaet jeogori and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s textiles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N	%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Response N	102		67		35	
Fiber type (Multiple response)						
Organic cotton	79	31.6	57	32.9	22	28.6
General cotton	60	24.0	41	23.7	19	24.7
Non fluorescent cotton	55	22.0	39	22.5	16	20.8
Unbleached cotton	38	15.2	24	13.9	14	18.2
Bamboo	18	7.2	12	6.9	6	7.8
Total	250		173		77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s textiles						
	N	Mean	N	Mean	N	Mean
	100	3.92(.69)	65	4.03(.59)	35	3.71(.83)
		t-value				2.22*
Reason for 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94		63		30	
Natural fiber	69	24.7	47	24.7	22	24.7
Suitable for the season	50	17.9	37	19.5	13	14.6
Free of harmful chemicals	31	11.1	21	11.1	10	11.2
Excellent moisture absorbency and air permeability	26	9.3	16	8.4	10	11.2
Excellent hand	25	9.0	17	8.9	8	9.0
Easy wash & care	24	8.6	22	11.6	2	2.2
Use of eco-friendly material	18	6.5	12	6.3	6	6.7
Trusted quality by certification mark	9	3.2	7	3.7	2	2.2
Reasonable price	6	2.2	6	3.2	0	0.0
Functionality(antimicrobial, deodorization)	4	1.4	0	0.0	4	4.5
etc.	3	1.1	1	0.5	2	2.2

Table 7. Fiber type of respondents' baenaet jeogori and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s textiles(continued)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Response N	7		2		5		
Reason for dis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Unsuitable for the season	5	1.8	0	0.0	5	5.6
	High price	4	1.4	2	1.1	2	2.2
	Poor functionality	2	0.7	0	0.0	2	2.2
	Inconvenient wash & care	2	0.7	2	1.1	0	0.0
	etc.	1	0.4	0	0.0	1	1.1
Total	279		190		89		

*p>.05, Multiple response: percents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재(19.5%)와 세탁 및 관리 용이(11.6%) 등을, 다자녀 응답자는 흡습성, 통기성 우수(11.2%)와 기능성(4.5%)을 더 선택하였다.

배넛저고리의 소재에 불만족한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이유에 대한 선택률은 낮았으나, 다자녀 응답자가 계절에 부적합한 소재 사용(5.6%)을 주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는 배넛저고리가 주로 사계절용으로, 계절 구분이 없이 사용되어 아이를 덥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생아의 높은 체온과 속싸개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재 사용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Roh & Kwon, 2018).

친환경 소재의 배넛저고리를 구매 및 사용 이유와 친환경 소재의 배넛저고리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8). 친환경 소재의 배넛저고리를 구매 및 사용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건강(28.1%), 피부질환 예방(21.2%), 친환경성(18.7%), 지인의 선물(13.3%) 등이 주요 이유로 선택되었다. 이는 오가닉 코튼처럼

100%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 환경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으며 흡습성과 열전도율이 높고 대전성이 낮아 마찰에 의한 정전기를 잘 일으키지 않아 아토피나 과민성 피부 및 아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Park, 2003). 한 자녀 응답자들은 다자녀 응답자들에 비해 선물(15.6%)로 더 취득하고, 다자녀 응답자들은 친환경 인증 마크를 신뢰(8.8%)하여 더 선택하였다.

친환경 소재의 배넛저고리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4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 친환경 소재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 자녀 응답자의 만족도가 다자녀 응답자보다 높았다. 이는 사용경험에서 오는 친환경 소재의 관리나 실효성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가닉 소재는 삶으면 안되며, 무형광 소재는 다른 소재와 함께 세탁 시 오염되는 등 관리 및 취급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에 대한 다자녀 응답자의 만족도

Table 8. Reason for choosing baenaet jeogori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and satisfaction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Response N	91		61		30		
Reason for selection (Multiple response)	Health of baby	57	28.1	41	30.4	16	23.5
	Prevention of skin disease	43	21.2	25	18.5	18	26.5
	Eco-friendliness	38	18.7	24	17.8	14	20.6
	Present from acquaintance	27	13.3	21	15.6	6	8.8
	Excellent hand	16	7.9	12	8.9	4	5.9
	Advice of friends or shop assistants	11	5.4	7	5.2	4	5.9
	Confidence of eco-friendly certification mark	10	4.9	4	3.0	6	8.8
	etc.	1	0.5	1	0.7	0	0.0
Total	203		135		68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N	Mean	N	Mean	N	Mean	
	95	3.94(.73)	63	4.06(.62)	32	3.69(.86)	
			t-value		2.45*		

*p>.05,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Roh & Kwon, 2018).

4. 결 론

본 연구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 배넛저고리 사용 현황 및 만족도, 배넛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배넛저고리, 속싸개, 상하 내의, 바디슈트, 우주복, 배넛가운 순으로, 평균 4.5종의 신생아복을 보유하고, 집에서 배넛저고리와 속싸개, 상하 내의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자녀 응답자들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신생아에게 속싸개와 배넛가운, 우주복을 덜 사용하고, 상하 내의와 바디슈트를 더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싸개의 경우 하루 종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사용 이유는 안정감 부여, 모로반사 방지, 추위 방지, 숙면 등이었다. 그러나 아기가 속싸개를 풀고 빠져나오고, 태열 발생 등으로 사용을 중단하였다.

배넛저고리는 오프라인 구입, 지인 선물, 산부인과와 조리원 선물,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물려받기, 온라인 구입 등을 통해서 취득하였으며, 한 자녀 응답자는 선물의 형태로, 다자녀 응답자는 구매 또는 물려받는 형태로 더 많이 취득하였다. 배넛저고리 선택 기준으로 소재와 출생 계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큰 관심을 드러냈다. 사계절용 배넛저고리를 가장 많이 구매하였으며, 여름 출생 시에는 여름용을, 봄, 가을, 겨울 출생 시에는 사계절용을 많이 구매하였다. 다자녀 응답자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사계절용 구매 비율이 높았다. 주로 4~6벌의 배넛저고리를 소지하였으며, 생후 4주간 이상 사용하였다. 착탈 편리와 소재, 봉제 방식 등의 이유로 배넛저고리의 사용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착탈 불편과 소재에 불만족하였다.

배넛저고리 소재는 오가닉 면, 일반 면, 무형광 면, 무표백 면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며, 친환경 소재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배넛저고리 소재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천연소재, 계절에 적합, 유해화학물 무첨가 부분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다자녀 응답자는 계절에 부적합한 소재 사용으로 인해 소재에 불만족하였다. 자녀 건강과 피부질환 예방, 친환경성 등의 이유로 친환경 소재의 배넛저고리를 구매하였으며, 친환경 소재의 배넛저고리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다.

본 연구는 신생아복 사용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신생아복 소재를 매우 중요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생아기에 배넛저고리는 속옷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적인 측면보다 신생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능을 요구되며, 소재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소재의 안전성과 계절 적합성에 큰 관심을 가지며, 요즘 신생아복 시장에서 친환경 소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재에 대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 마크나 안전인증

마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References

- 'Baby clothes hazardous substances muller. 100% organic cotton baby clothing purely pitch 'attention'. (2017, April 12). *Korea Economic*. Retrieved February 5, 2018, fr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124918a?nv=o>
- Bang, Y. D. (2017, July 11). Trend keyword in the infant and toddler industr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Maeil Business*. Retrieved March 1, 2018,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65247>
- Blair, P. S., Sidebotham, P., Evason-Coombe, C., Edmonds, M., Heckstall-Smith, E. M., & Fleming, P. (2009). Hazardous cosleeping environments and risk factors amenable to change: Case-control study of SIDS in south west England. *British Medical Journal*, 339, b3666. doi:10.1136/bmj.b3666
- Do, W. H., Choi, H. S., & Kim, E. K. (2003).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sizing system of infant coveral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2), 277-288.
- Gerard, C. M., Harris, K. A., & Thach, B. T. (2002). Spontaneous arousals in supine infants while swaddled and unswaddled during rapid eye movement and quiet sleep. *Pediatrics*, 110(6), e70. doi:10.1542/peds.110.6.e70
- Jang, E. A. (2009). *A study on pattern making & sewing of DIY 'baenaet jeogori' goods for a newborn bab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Jang, H. J. (2015). Development of design of naturally-dyed 'jeogori' for a newborn baby with *Salvia plebeia* R. Brown variegation, which has efficacy in alleviating atopic diseas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8(4), 83-97. doi:10.16885/jktc.2015.12.18.4.83
- Ji, S. Y. (1993). *A study on the system for infant col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H., & Lee, E. O. (2010). The research on eco-friendly textile in children textile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6(1), 66-79.
- Kim, J., & Sohn, H. S. (1999). A study on sizes and specifications of infants' apparel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6), 1015-1025.
- Kim, S. R. (2000). *피복재료학*[Textiles](7th ed). Seoul; Gyomoon.
- Kim, Y. N., Kim, Y. R., Kim, J. S., & Na, Y. J. (2016). Children wear's shopping orientation of parents according to watching childcare-entertainment reality TV program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9(3), 59-70.
- Lee, B. H. (2017). The development of DIY product for spreading traditional birth-clothes product.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0(1), 17-30. doi:10.16885/jktc.2017.03.20.1.17
- Lee, J. Y., & Chun, J. (2001). A study on garment sizing systems for infants an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6), 1046-1056.
- Park, I. H. (2003). *Study on the organic phenomenon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H. R., & Jung, J. H. (2014). Products of organic cotton brand and color analysis for baby wear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 Japanese bran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678-687. doi:10.5762/KAIS.2014.15.2.678
- Park, M. A. (1991). *A study of the children's clothes advertisement effects a purchase a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 Roh, E. K., & Kim, S. H. (2010). Subjective hand and sensibility of knit fabrics according to preference segmen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0), 1611-1620. doi:10.5850/JKSCT.2010.34.10.1611
- Roh, E. K., & Oh, K. W. (2014). Subjective hand and physical properties of tricot based artificial suede according to raising finish.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1), 153-159. doi:10.5805/SFTI.2014.16.1.153
- Roh, E. K., & Oh, K. W. (2015). Hand and preference evaluation of laminated waterproof breathable fabric.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5), 854-861. doi:10.5805/SFTI.2015.17.5.854
- Roh, E. K., & Oh, K. W. (2017). The subjective hand and preferences evaluation of artificial leather by use.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1), 79-89. doi:10.5805/SFTI.2017.19.1.79
- Roh, E. K., Oh, K. W., & Kim, S. H. (2013). Classification of synthetic polyurethane leather by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consumers' preference for fashion items. *Fibers and Polymers*, 14(10), 1731-1738. doi:10.1007/s12221-013-1731-x
- Roh, E. K., & Kwon, S. H. (2018). A study of current newborn clothing and consumer complaint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0(2), 128-142. doi:10.5805/SFTI.2018.20.2.128
- Samsung Publishing Co. (2017). *Encyclopedia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eoul: Author.
- Song, J. E. (2010). *Research on baby/children's clothing with flowers as a motif-using organic materi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Song, Y. J. (2004). *A study on the influence about behaviors of buying kid's clothes by mother's personality to consume appar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waddling: IHDI position statement'. (2010, May 27). *Hipdysplasia.org*. Retrieved February 5, 2018, from <https://hipdysplasia.org/developmental-dysplasia-of-the-hip/hip-healthy-swaddling/>
- Van Sleuwen, B. E., Engelberts, A. C., Boere-Boonekamp, M. M., Kuis, W., Schulpen, T. W. J., & L'Hoir, M. P. (2007). Swaddling: a systematic review. *Pediatrics*, 120(4), e1097-e1106. doi:10.1542/peds.2006-2083
- Yoon, H. Y. (2010). *Study on the new-born baby wear applying Korean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 Eui University, Busan.

(Received 26 March 2018; 1st Revised 12 April 2018;
2nd Revised 23 April 2018; Accepted 28 April 2018)